

좌담회 - 공적개발원조기금의 전략적 활용 방안과 가능성

원자력, ODA(공적개발원조)를 만나다



- **참석자**
조승희 YTN 보도국 해외방송팀 차장(사회)
김근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영식 삼영유니텍(주) 부사장
서준교 한국수력원자력(주) 해외사업처 과장
이영섭 한국수출입은행 경영기획실 부부장
조한덕 한국국제협력단 지역1팀장
- **일 시** : 2007년 11월 8일 목요일
- **장 소** : 서울 대학로 회의실

공적개발원조(ODA)가 새로운 국제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 위상을 새로 세우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약 7억 4천만불로 국민총소득(GNI)의 0.09% 수준인 공적 원조 자금 규모를 2015년까지 지금의 약 3배인 국민총소득의 0.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제 원조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높여줄 뿐 아니라 산업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 우리의 원자력은 ODA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공적 개발 원조, 국제 사회를 위한 손길



조 승 희(사회)

YTN 보도국 해외방송팀 차장

사회

ODA 사업의 골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무상 원조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의 화력발전소를 캐나다의 자본으로 세운 것이 하나의 예일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유상 원조와 무상 원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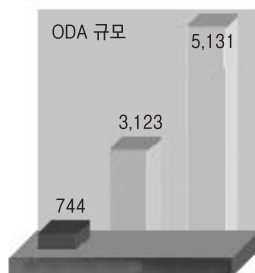
공적 개발 원조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행위 주체가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또 정부의 위탁을 받은 공공 기관이어야 합니다. 무상 원조나 양허성 차관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양허율이 25% 이상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1만원을 빌려줬을 때 2천5백원을 제하고 7천5백원 이하로 받으면 유상 원조가 성립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ODA 실시 체계

구분	협력형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양자간	• 무상원조:무상협력, 기술협력	한국국제협력단 (KOREA)	외교통상부
	• 유상원조: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
다자간	• 국제기구분담금 : UN 등 • 국제기구출자금 : IBRD, ADB 등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우리나라 ODA의 과제

- OECD/DAC 회원국가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음
- 우리나라와 경제력이 비슷한 스페인의 1/4, 네덜란드의 1/7 수준
- OECD/DAC : OECD개발원조위원회



('05년 예비통계기준, 단위:백만 \$)

	ODA/GNI 비율
한국	0.09%
DAC회원국	0.03%
UN권고 기준	0.7%

('05년 기준)

지금 국제 사회에는 빈곤, 질병, 재난, 환경 등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대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국제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UN이 2000년에 '천년 개발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원조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은 민간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도국에는 기업들의 수익

창출에 대한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즉 민간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원조의 대부분은 공적 자금이 담당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하는 위상에 맞게 점차 ODA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무상 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유상 원조는 한



조한덕
국제협력단(KOICA) 지역1팀장

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까지 국제원조를 GNI 대비 0.25%로 늘리겠다는 중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OICA 무상 원조를 포함한 EDCF 자금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승희 ODA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속도로나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을 비롯해 특히 원자력 분야의 원조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의학이나 동위원소 등의 원조 경험이 있습니까?

조한덕 아직은 미약합니다만, KOICA가 하는 부분은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무상 원조인데, 프로그램은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KOICA를 통한 무상 원조는 주로 국내 초청 연수로 이루어집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원자

력 분야 사업으로 총315명을 초청했고, 올해 초청 인원은 6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승희 우리가 OECD에 가입하면서 공여국이라 할지라도 제약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조한덕 여러 제약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타이드 에이드 (Tide Aid)라고 하는 구속성 원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유-무상 모두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특정 부분을 지원하면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야 한다는 식의 원조는 계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KOICA에서는 인적 자원 네트워크, 교육 등을 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조승희 요즘 우리나라가 사이클로트론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 등 비발전 분야에서 EDCF 활용 가능성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영섭 그 부분에서는 베트남 쪽의 EDCF 지원 요청을 하나 받

은 바 있습니다. 비상업적인 용도로 공적 기관에서 요구할 때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공 목적에 지원한다면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타이드 에이드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승인을 내기 이전에 OECD 회원국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쪽에서 그 사업이 상업적이냐 상업적이지 않느냐는 판단 기준에 맞춰 협의를 합니다.

조승희 앞으로 경험이 더 쌓인다면 그 제약을 비켜 나갈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영섭 EDCF 입장에서 ODA를 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교두보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개도국의 정책 개발 지원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구속성 원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약이 심해지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 즉 국제 경쟁 입찰에서 되는 분야인지 파악합니다.

기업들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자



우리나라와 EDCF를 활용한 핵의학 장비 구축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베트남 다낭시립병원

력발전소를 세울 때 따르는 부대 인프라에 대해서는 EDCF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인근 지역의 파급 효과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언타이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서준교 원자력의 경우 기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력 양성이라든가 법을 만들고 하는 여러 과정들이 무척 중요한데, 인력 양성의 경우 사람들을 교육시킴으로써 한국형 원자료를 팔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즉 상업적인 목적이 아주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력 양성을 시킬 때, 공적 자금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전 후보지에 병원을 지어준다거나 공공 복리를 위한 시설을 짓는 것 같은 경우 말이죠.

조승희 오늘 이 자리가 기관 간 협력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봅니다. 경희대에서는 해외 연수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김근수 우리 학교에서 벌이는 연수의 기본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한국 배우기입니다. 한국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한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고 과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주로 경제 분야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연수에 참여합니다.

현재 연수 과정에는 에너지 분야가 없어서 아쉬운데요, 단기 연수의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산·학 연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저

희는 5년째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36개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온 다양한 이들이 14개월 동안 연수를 받는데, 연수를 받고 나면 한국에 참 고마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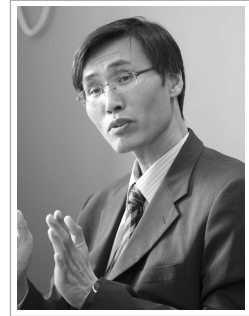
문제는 그들이 연수받고 돌아간 뒤의 관리입니다. 그 뒤에는 산·학 연대가 해줘야 할 몫입니다. 내년에는 홈 커밍 데이로 운영해 태국에서 연수생들이 모일 계획입니다.

에너지 쪽도 공무원들의 도움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배출한 학생 가운데는 각 부서의 국장, 차관급까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준교 저희도 KOICA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회사 자체적으로 주요 정책 결정자들을 초청해 원전을 시찰하게 합니다.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시민 단체나 종교 단체 지도자들도 원자력 산업체를 한 번 견학하고 나면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신고리 1, 2호기를 짓고 있는데 얼마 전 그곳을 견학시킨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복지 시설 등에 대해 놀라더군요. 그렇게 교육 받고 산업체를 견학하고 간 사람들을 모아서 '원자력 동창회' 형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의 원자력을 배운 이들을 모아서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려 합



이 영 섭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기획실 부부장

니다. 그 동안 국회의원들, 국영 기업체 사장들이 많이 참여해왔는데, 접목하면 꽤 많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비발전 분야를 공략하라

조승희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원자력발전소가 76개 있다고 합니다. 경희대 연수에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삼영유니텍이 비발전 분야의 대표 사업체인데 사업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비발전 분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영식 우리 회사는 한 번도 EDCF를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사이클로트론을 만드는 회사는 삼영유니텍을 포함해 세계에 5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벨기에의 회사인데, 벨기에가 미국과 함께 함께 가장 공을 들이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처음 우리 회사가 진출한 곳은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이후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들의 요구대로 하노이에 병원



서준교

한국수력원자력(주) 해외사업처 과장

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교육도 시키고 기술을 공유하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얼마 전 베트남 다낭 지역에 EDCF에 대한 국무총리 승인이 났습니다. 다낭 시장의 적극적인 도움 약속을 받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단 사이클로트론은 비발전 분야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나 이스라엘에서는 EDCF를 많이 넓히고 있는데, 벨기에에는 벌써 베트남 하노이에 하나 진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 EDCF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베트남 진출을 통해서 점점 그 기회를 넓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영섭 몇 나라를 언급하셨는데, 중국은 원조 사업을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OECD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고 여기저기 나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중국이 굉장하게 많이 원조하고 있죠. 저희 수출입은행이 2005년에 중기 전략을 짜면서 중국에 대한 순수 원조는 중지시키고 수출 지원 차원의 원조는 계속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수출입은행이 EDCF를 갖고 있는 이유가 다양한 금융 지원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이나 담수화 설비, 플랜트 등은 원조 성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원조를 해야 하겠지만 우선 수출 신용의 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조 성격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병원을 짓는다거나 도로를 닦는다거나 부대시설을 먼저 닦아줄 수 있겠지요.

김영식 카자흐스탄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의 원자력병원과 똑같은 것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은 EDCF 같은 것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영섭 카자흐스탄은 기본적으로 타이드 조건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출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몇 해 전 카자흐스탄에 EDCF를 딱 한 번 지원했는데 그 뒤에는 거부하더군요.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은 EDCF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석유 생산국이라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은 대부분 원조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전략적으로 11개 국가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은 최우선 지원 국가입니다. 베트남은 저희가 선정한 최우선 지원국 가운데 하나로, 사업이 있으면 가능한 EDCF를 지원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저희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보다 승인이 더 중요합니다. 승인은 해당 정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작년에는 승인 규모가 5천억원이었고, 2011년부터는 1조8천억원까지 우리나라 ODA 확대 계획에 맞춰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사업을 적극 발주하셔서 해당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베트남은 다낭을 비롯해 여러 도시들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이려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연결해서 가능한 부분이 많더군요.

이영섭 사업 발굴 쪽을 말씀하시는데, 사업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 개발 계획이나 빈곤 줄이기와 관련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선정해서 사업 개발을 하게 됩니다.

김영식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이영섭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상업적인 계약은 단지 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지원하면 되는데, 이것이 정부 사이의 약속이다 보니 협정의 시간이 무척 길습니다. 사업 계획 세우고 승인하고



김근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차관 협정을 맺고 하면서 필요한 절차들이 1, 2년 걸리곤 했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원조 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정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급행료를 받는 관행이 심합니다. 관료제와 시스템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10년을 내다보는 교육의 힘

조승희 공무원 얘기가 나왔는데, 경희대 연수에 오는 각 나라의 공무원들 사이에도 문화적인 차이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김근수 문화적인 차이가 나라별로 무척 큽니다. 아프리카가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연수 오는 아프리카 공무원들은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교육도 잘 받았고 사람들도 착합니다. 동남아시아 공무원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동경하지만 교육 시스템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남아메리카나 서아시아 쪽

은 저희 시각으로 볼 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듯합니다. 그런 다양한 특성들을 볼 수 있지만 연수 오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무척 우수한 인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승희 공무원들은 공적인 분야의 종사자들인데 혹시 한수원에서 사업을 진출할 때 그 나라 공무원에 대해 원자력 전문 교육을 따로 시키나요?

서준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따로 없습디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프로그램을 한 번 교육시킴으로써 우리의 원자력 모델을 독자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한 번 도입하면 바꾸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합니다. 미국형, 한국형, 일본형 원자료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승희 역시 교육이 중요하군요.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려인들이 가장 성공한 민족으로 꼽히는데, 고려인들을 인력 자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KOICA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한덕 원자력은 규모가 무척 큰 사업이기 때문에 KOICA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 4년 전에 베트남 IT 산업 분야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준 적이 있는데 베트남이 그 장치의 80% 정도를 수용했습니다. 그런 것이

마인드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원조를 하면서 제도와 문화까지 퍼트리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제도나 문화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제도나 문화 등의 사업은 KOICA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준교 KOICA의 연수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2주 정도인데 2, 3개월로 늘려 주시면 어떨까요. 적어도 두세 달은 교육 받아야 질도 높아지고 한국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한덕 KOICA에는 석사 과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대, KDI, 경희대 등 5개 대학에 각 20명씩 석사 과정 지원이 있는데, 지원해서 들어가는 영국문화원의 시스템처럼 프로그램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하면 KOICA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1, 2개월 할 수 있는 충분한 교과 과정만 마련된다면 연수 기간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산업체 투어를 시켜주면 좋은 인상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금년 KOICA에서 연수받은 3600명의 연수생들 가운데 정책 결정자가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KOICA 프로그램 가운데 산업 시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원자력 시찰 프로그램을 넣는



김영식
삼영유니텍(주) 부사장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선소, 자동차 공장, IT 회사 등에 주로 다녔는데 원자력을 넣으면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한수원에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교 저희들이 원자력발전소로 진출하기 위해 선택 집중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인데, 특히 인도네시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있는데 원자력 시설을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원자력 발전을 결정하고 도입하기까지의 과정이 무척 깁니다. 정책, 부지 선정, 건설까지 10년 정도 걸리는데 조금 해하지 않고 그 나라들의 학생들, 공무원들에게 한국 원자력을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근수 실지로 저희 경희대에서는 작년부터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개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 시찰에 원자력국제협력재단과 함께 원전 및 관련 시설을 시찰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큰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본 공무원들은 원전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더군요.

**작은 정보가 모여
큰 효과를 맺는다**

조승희 이번 좌담회의 큰 주제가 공여 기금을 어떻게 하면 원자력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각 분야의 역량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나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노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5년, 10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역시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공적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결국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업적인 부분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준교 생각해본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원자력발전소를 세울 부지를 이미 정해냈는데, 그 지역의 공공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새 부지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 부지를 물색하

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조사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면 사전 작업에 필요한 비용은 EDCF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영섭 저희는 EDCF 사업과 연계해서만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해외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는데, 자금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한덕 원자력 사업은 결코 단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다. 제가 1997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일했는데, 그때도 원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가 진행 중인 것이죠. 그만큼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 과학기술 부만 관련된 것은 아닐 테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 부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보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정책 입안하는 분들을 모아가다 원자력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연수



경희대 석사과정 산업 시찰의 일부로 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하고 있는 개도국 공무원들

분야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KOICA가 수출입은행보다는 자유롭고 또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대상지가 되는 국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공공 이익 조사도 KOICA를 통해 할 수 있고, 사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영섭 지금까지는 대기업 위주였는데, EDCF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백만불 이하의 설비인 경우 소액 차관을 이용한 지원이 쉽습니다.

김영식 저희 제품은 300만 불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병원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병원들을 여러 개 짓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조한덕 저희 KOICA에서 원자력 분야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연수를 통해 학위를 주고 법과 제도 등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연수 과정에 원자력발전소 견학 프로그램을 넣고 타당성 조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준교 ODA 자금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저

희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병원 같은 큰 규모의 사업뿐 아니라 학교를 짓는다거나 하는 작은 일들,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 지역을 위한 복지 사업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ODA의 조건을 충분히 채우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ODA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ODA는 국가 이미지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원자력 분야의 해외 진출 분야와 관련해서 OECD에 가입하면서 OECD 수출 신용협약이라는 것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타이드 에이드에 대해서는 일반 에이드보다 조건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EDCF 차관의 경우는 이것에 지배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은 ODA를 통해서 단기적인 이윤 창출만 바라지 말고 좀 더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ODA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저희 학교에서는 ODA 국내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국의 연수생과 국내 전문가 그룹을 연결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는 산·학 연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고민하는 창구가 없었는데, 여러 기관들이 모여 창구를 함께 만들고 계속 이어 나가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DA 전문가 양성에 지금 에너지 쪽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영식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좌담회가 참 고마운 자리입니다. 사이클로트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각 나라들에서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사이클로트론을 많이 대중화시켰다고 자부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았다더라면 더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예전에 마련되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큰데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승희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귀하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한국 원자력의 해외 진출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 구속성 원조(Tied Aid)**

원조 공여국이 원조(무상 및 유상 원조 포함)를 제공하면서 그 원조에 수반되는 물자나 용역의 조달을 원조 공여국에 한정하여 실시케 하거나, 소수의 국가에게만 한정하여 실시케 하는 형태의 원조. Tied Aid (구속성 원조)는 원조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국제사회는 원조를 Untied(비구속성) 형태로 제공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조를 Untied 형태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